

2009년도 제 5차 아태전략포럼  
결과 요약

2009년 9월 18일 (금) 07:00 ~ 09:40  
서울, 롯데호텔 36층 아스토룸

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 
(KOPEC)

## I. 개 요

1. 일 시: 2009년 9월 18일 (금) 07:00 ~ 09:40
2. 장 소: 서울 롯데호텔 36층 아스트룸
3. 주 최: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(KOPEC)
4. 주 제: “아시아 기후변화와 지역협력 과제”  
(Climate Change in Asia and Regional Cooperation)
5. 프로그램
  - 사회: 양수길 KOPEC 회장
    - o 07:00 - 07:30 조찬환담
    - o 07:30 - 07:50 발제: 정태용 아시아개발은행(ADB) Senior Economist
    - o 07:50 - 09:40 토론
6. 참 석 자: 총 20 명 (사회자 및 발제자 포함)
  - 강문수 한국개발연구원 명예연구위원
  - 강종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
  - 김상겸 KOPEC 사무국장
  - 김원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
  -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 산업·기업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
  - 김지석 영국대사관 선임기후변화/에너지 담당관
  -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환경연구팀장
  - 김현진 전국경제인연합회 연구원 (글로벌경영팀 이성일 과장 대리)
  - 남상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그룹장
  - 안계량 환경부 주무관
  - 예충열 한국교통연구원 기획조정실장
  - 유범식 녹색성장위원회 협상TF 과장
  - 이동규 외교통상부 1등서기관 (경제공동체과 백범흠 과장 대리)
  - 이세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획행정실장
  - 이창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 (기후변화기술연구본부장 대리)
  - 조병구 한국개발연구원 재정·사회개발연구부 선임연구위원
  - 최정석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무역전략실장
  - 황기연 한국교통연구원 원장(가나다순)

## II. 회의 결과 요약

---

---

### 사회: 양수길 KOPEC 회장

---

---

□ 제 5차 아태전략포럼 개최 배경 및 목적

- 현재까지 APEC, PECC, 그리고 KOPEC 모두 무역과 투자 자유화에만 관심을 집중하였으나, 이제는 지속가능성, 생태환경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이 필요함.
  - 한국도 이와 관련하여 이제는 G-20 편입을 발판삼아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 고려해야 함.
- KOPEC은 11월 중 'G-20 and East Asia'라는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임.
  - 지속가능한 발전, 기후변화를 고려한 한국의 Leader Role의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함.
- 기후변화, 녹색석장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마련을 위한 토론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 5차 아태전략포럼을 개최함.

---

---

### 발제: 정태용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경제학자 “아시아 기후변화와 지역협력 과제”

---

---

#### <기후변화 경제학과 아시아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>

□ 기후변화 현황 및 예측

- 원래 기후변화라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나, 산업혁명 이후 갑자기 인간에 의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급격하게 늘어왔고, 이런 급격

한 변화는 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함.

-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보다는 대기권에 머무는 온실가스 농도가 결국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방출되면 대기권에 100년 이상 머무르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중요함.
- 파리에 있는 IEA(국제에너지기구)에 따르면 2030년까지도 결국 주된 에너지원은 화석연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.

#### ○ 아시아 지역 이산화탄소 방출량

- 동아시아 이산화탄소 배출은 전 세계 배출량 중에서 약 30%를 차지함
- 인도와 중국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, 중국은 미국을 앞질러 현재는 배출량 1위임.
- 중국이나 인도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총 배출량으로 하지 말고 1인당 배출량으로 하자고 주장함.

#### □ 기후 변화 경제학

##### ○ 2100년까지의 지역별 GDP에 미치는 효과

- 세계화, 환경문제를 감안한 시나리오에 근거한 분석모델에 따르면, 비(非) 시장분야의 영향과 재난 위험을 모두 고려 시, 인도네시아, 필리핀, 태국, 베트남 4개국은 2100년까지 GDP 6.7%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.
- 적응 능력을 높이는 데 따르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초기에 2020년까지는 증가하는데 이 경우, GDP loss가 더 작아지므로 benefit 은 결국 증가함.
- 결국 지금 빨리 투자를 해서 적응 능력을 키워야 장래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임.

##### ○ 동남아시아의 지역의 기후변화와 영향

- 동남아시아 지역은 약 2억 5천 명 정도가 하루에 2달러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, 해안 지역을 따라 도시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음.
- 해안 쪽으로 발전이 되면 기후변화의 영향에 너무 쉽게 노출이 되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음.
- ASEAN 국가들은 지난 몇 십 년 동안 평균 0.1도에서 0.3도 정도의 온도 상승을 보이고 있으나,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균 강수량은 줄어들어 큰

문제가 되고 있음.

- 2100년 기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450ppm, 550ppm으로 표준화 할 경우, 전 세계의 대기권의 농도가 그만큼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동남아시아 4개국은 2050년에 가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보다 반 정도는 줄여야 할 것임.

## □ 시사점

- 기후변화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아직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으므로, 시급한 대응책이 필요함.
  -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전 세계 공통으로 요구되나, 각각 다른 책임에 바탕을 둔 글로벌한 해결책이 요구됨.
  - 지역별로 적응(Adaptation)과 완화(Mitigation)라는 두 가지 수단을 통한 전 지구적 기여가 요구됨.
- 아시아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은 적응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, 국제적인 자금 지원과 기술대체가 필요함.
  - 아시아의 개도국의 성공적인 적응과 완화를 위해 국제 자금 지원을 보다 현명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.
  - 적응도 중요하지만, 저탄소 성장은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 및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함.
- 아시아 국가들에 한국의 "Green Stimulus" 정책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경제 발전, 일자리 창출, 탄소 배출 절감과 동시에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비를 할 수 있음.

---

---

## 자유토론

---

---

- 기후 변화에 따른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라

는 지혜가 필요함

○ 한국은 비교적 여러 분야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적응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.

○ 하지만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은 기술 중심의 계획들이 많은데,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함.

□ 녹색 성장 기술과 관련하여 다양한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가 있으며, 성장과 성공의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를 찾아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함.

○ 세계 각국의 녹색 성장 아이디어

- 영국의 Forest Project 사례: 사막 녹조화 프로젝트
- 독일 사례: 사하라 사막의 태양열에너지를 이용한 유럽의 전기를 공급함
- 스위스 사례: 바다와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발전시킴
-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의 IRENA 신재생에너지 UN기구 유치 사례

○ 우리나라도 몽골지역 고비사막의 녹조화 추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.

□ 농업분야에서도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여러 현상에 대한 대응책과 그에 따른 연구가 필요함.

○ 기후변화에 가장 긴밀한 영향을 받으므로 적응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분야임.

○ 완화(Mitigation)에 집중된 관심을 교육에 홍보로의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.

- 국민들의 인식이 변하면 정책 수립 및 이행 시, 보다 높은 성과와 성공률을 보장 받을 수 있음.
- 네덜란드의 교육 홍보 예산 비중은 30%임. (한국은 0.5%)

○ 축산,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와 온실가스와의 관계문제를 분

명히 할 필요가 있음.

- 농업분야에서 온실가스 차지하는 비율은 2.5% 정도이며, 그 중에서 축산, 가축분뇨가 차지하는 비율은 0.7~1% 정도임.
-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스크의 과장으로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음.
- 메탄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의 25~30배의 효과가 있으므로 관련 된 분야의 개발이 중요하며, 최근 이와 관련한 연구개발도 진행 중임.

#### □ 우리나라의 현황 및 녹색성장 전략의 방향성

- 높은 R&D의 비중도 물론 중요하나,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를 먼저 구성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과 준비를 해야 함.
- 기술 중심의 녹색 성장 사업에 대한 우려감이 있으며, 이보다는 에너지 절약과 같은 인간의 행동 변화에 대한 적극적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임.
- 개도국과 이머징 국가에 대비한 한국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
  - 이 정체성에 따라 한국으로서의 위치와 자격, 공헌해야할 분야와 부분이 명확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계 속에서 한국의 입지를 굳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임.
- 한국의 Green New Deal(Green Stimulus)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Promotion이 필요함.
  - 한국의 Green New Deal은 아시아 국가들의 모범사례임.
  -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역할모델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.
- Climate-proved project 의 필요성
  - 향후 추진 프로젝트들을 기후변화에 따른 상황들을 예측하여 손실과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짜는 것이 필요함.
- 한국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있어서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지역협력 을 이끌어 낼 수 있음.

- 한국은 아시아 국가들의 achievable target임.
- 아시아 국가들은 무조건 선진국의 방향을 따라가기 보다는 한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성공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.

○ 기후변화와 협상, 협약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

- 앞으로는 모든 전문 분야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거기에 따르는 전문가가 필요함.

□ 그 외 에너지, 농업 분야, 기후변화와 완화, 기후 변화와 건강, 기후 변화와 Gender에 관한 연구 등이 필요하며, PECC와 APEC의 입장에서는 기후변화와 무역, 교류 관계에 관한 연구와 관심이 필요함.

"끝"